

이달의 절기: '소한'과 '대한'

1월에는 우리나라의 24절기의 마지막을 나란히 장식하는 2개의 절기가 있어요. 23번째 절기에 해당하는 1월 5일의 **소한**(小寒, 작은 추위), 24번째 절기에 해당하는 1월 20일의 **대한**(大寒, 큰 추위)입니다.

절기의 이름으로만 보면 대한이 가장 추울 것 같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소한 때 가장 추워요**. 그래서 이를 잘 나타낸 속담들도 생겨났죠.

대표적인 속담으로는 '대한이 소한집에 놀러 갔다가 얼어 죽었다.'와 '소한 추위는 꾸어다가라도 한다.'는 속담이 있어요. 소한이 대한보다 더 춥다는 의미는 물론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이겨냄으로써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속담입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이달의 명절: '설날'



설은 한 해의 첫 날을 뜻해요. 우리나라에는 음력의 설과 양력의 설이 있어요. 양력의 설인 1월 1일을 '신정'이라 하고, 음력의 설인 1월 29일을 '구정'이라고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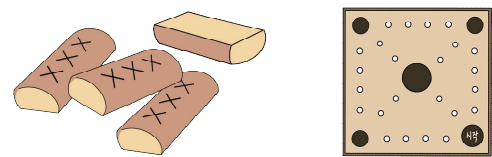
설날에 입는 옷을 '설빔'이라고 해요. 설날에는 색깔이 있는 옷을 입는데 특히 어린이들은 '색동저고리'를 입어요.



설날 아침에는 집에서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요. 차례를 마치면 친척들과 함께 성묘를 해요. 근래에는 설이 오기 전, 또는 설 이후에 성묘를 한다고 해요.



설날에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떡국이 있어요. 떡국과 관련된 유명한 속설을 아나요? 바로 '떡국을 먹지 않으면 나이를 먹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나이를 먹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떡국이 설날을 상징하는 주요 음식임을 의미합니다.



설날의 놀이에는 연날리기, 윷놀이, 널뛰기, 돈치기 등이 있어요. 그 중 윷놀이는 어디서든 다 같이 할 수 있는 보편적인 놀이이면서 그해의 운수까지 점치는 윷점까지 가능한 놀이예요.



다른 나라에도 다양한 설 풍습이 있어요. 일본에서는 신사참배를 하고, 프랑스에서는 에트렌느 (Etrenne, 길조의 선물)라는 선물을 교환하며 덕담을 나눈다고 해요. 인도에서는 온 가족이 마당에 모여 냄비에 우유와 쌀을 넣고 죽을 끓이면서 한 해의 길흉을 점친다고 해요. 베트남에서는 수박을 준비해 손님들이 모이면 가운데를 갈라 빨간색 익은 정도를 보고 한 해의 길흉을 점친다고 해요. 멕시코에서는 1월 1일이 되는 시점인 자정에 시계탑 종이 열두 번 울리는 것에 맞추어 포도알 열두 개를 먹으며 새해 12개월 동안의 소원을 빈다고 해요. 이란에서는 시르(마늘), 세르케(식초), 십(사과) 등 이란어로 '시'로 시작하는 7가지 재료를 이용해 음식을 만드는데 이는 풍요와 건강, 행복 등을 상징한다고 해요.

출처: 한국민속대백과사전